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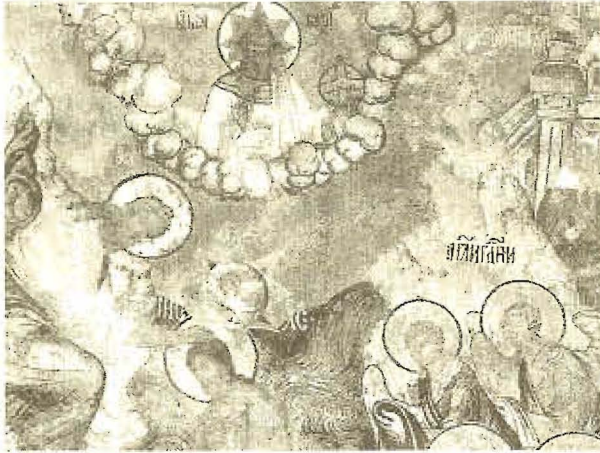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세례 축일  
제31권 7호(가해) 2011.1.9

## [묵상]



예수의 세례 <17세기, 프레스코 벽화, 상위영체 성당, 러시아>

부모님과 단란했던 성가정을 떠나  
세례자 요한이 있는 요르단으로 떠나신 건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적인 부르심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어야 할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

세례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삶,  
구세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세례자 요한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기 위함.

세례를 통한 새로운 우리의 삶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다짐했던  
하늘의 뜻과 소통하는 삶  
하느님의 영을 품고 사는 삶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선포가  
내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길.....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청년미사) | 오전<br>오후       | 8:30<br>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br>오전<br>오전 | 7:30<br>9:30<br>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제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E. Sharing(3제주)<br>울트라아 (4제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페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제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br>• 성모회/자모회<br>• 대견회/원서회<br>• 꾸리아<br>3제주 - 빈첸시오회<br>• 행사의 날<br>4제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         | (연)이광진                                                                                                                                                                                                                                                                                                                                                                                     |
| 특전미사        | (생)김풍길 바오로, 이호순 프란체스카                                                                                                                                                                                                                                                                                                                                                                      |
| 주 일<br>낮 미사 | (연)윤재림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순선 아녜스, 차홍석 베드로, 이필수, 석효정 스테파노, 김임주 안나, 박송희, 송봉규 요셉, 이중희 요셉, 엄은설 도로테오, 한태동 요한 & 윤인숙 마리아나                                                                                                                                                                                                                                                                     |
|             | (생)김형준 요한 가정, 김형미 테레사 가정, 이봉림 안나, 엄세중 그레고리오 & 영숙 마리아의 대자녀들, 이덕철 루카, 한국의방선교회 미주후원회 가정, 이호순 프란체스카, 홍광선 요셉 & 이호미 엘리사벳, 전시웅 요한, 전지나 요세피나, 전진웅 그레고리, 송광랑 카타리나, 정열모 미카엘,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김호순 비비안나 가정, 김용 스테파노 & 엘리사벳 가정, 김충용 그레고리오 & 아녜스 가정, 김우용 시몬 & 미리암 가정, 국세바스찬 & 수지 안젤라 가정, 장정진 베로니카 가정, 김정중 요셉, 이지영 엘리사벳, 백삼위 레지오단원들, 박진희, 박야고보 & 세실리아, 송기분 수산나, 문랍터스타 수녀, 이장환 사제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2,1-4,6-7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평화를 -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물고,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제 2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0,34-3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태오(Matthew) 3,13-17

영성제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네.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 33-42   |
| 입당  | 199                  | 183   | 183     |
| 봉헌  | 409                  | 315   | 257,269 |
| 성체  | Listen to our Hearts | 307   | 307     |
| 과견  | 235                  | 279   | 241     |

###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국법과 도덕률

다른 한편으로, 공적인 의무와 직업적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 각 개인은 자신의 신념을 옹호로 밀쳐놓음으로써, 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윤리적 기준은 오직 법이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양심을 포기함으로써 개인적인 책임은 국법에 전가되고 만다. 70). 이러한 모든 경향의 밑바닥에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윤리적 상대주의는 현대문화의 대부분을 특징짓고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직 상대주의만이 관용, 사람들간의 상호 존경, 다수 결정의 수용 등을 보장해 주는 반면에, 도덕적 규범들은 권위주의와 불용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어떠한 오해와 모순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리"의 이름으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들과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들 역시 "윤리적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며,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다. 의회나 사회의 다수가, 적어도 일정한 조건들 아래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 능력이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폭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우리 세기가 슬프게도 체험한 바 있는, 인류에 대한 그러한 범죄들을 당연히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범죄들이 방자한 독재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고 대중의 합의에 의해서 합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이상화하여 도덕성의 대체물로 만들거나, 또는 비도덕성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하나의 "체제"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인간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이 체제가 당연히 종속되어야 할 도덕률에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도덕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들과 동원하는 수단들이 지닌 도덕성에 달려 있다. 교회 교도권이 자주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거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대의 징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것이 구현하고 촉진하는 가치에 따라서 확립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계속)



## 세례는 영혼의 촛불을 밝히는 것

스스로 그늘을 만들지 않는 한 햇살은 어디에든 다녀 가고 스스로 가치를 낮추지 않는 한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까닭은 허기진 배만큼이나 덜 갠 영혼에 따사로운 햇살 한 줌 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펌프질하는 심장이 없다면 생명이 지속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을 펌프질하는 신앙이 없다면 살아 있음도 살아갈 일도 그리 많은 의미를 간직하지 못할 겁니다.

아침 햇살이 감미로운 빗줄로 감긴 눈을 뜨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는 신앙이 있어 영혼은 기지개를 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받았던 그날이 이마에 새겨진 인호만큼이나 가슴 깊이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천상의 빛 속에 자리하신 분께서 지상 세례를 받던 그날 하느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오늘도 세례 받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반딧불이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 이유가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듯 세례는 내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장막만이 질게 드리워진 듯한 세상에, 모진 비바람마저 텅으로 주어진 것같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탱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밀려나고 빗겨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고 보면 내 안에 중심 잡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늘을 만들고 스스로 촛불을 꺼버리는 어리석음을 간직한 것도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때 주어진 초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언제든 다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분명 세례를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혼의 초를 간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 초는 지속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 때로는 꺼지고 밝혀지기를 반복할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주머니 없는 하얀 옷을 입고 천상문에 다다를 때까지 말입니다.

켜지지 않은 초가 그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영혼에 주어진 초가 지속적으로 켜지지 못한다면 분명 천상 문에 이르는 길을 밝히지는 못할 겁니다.

세례 때 밝혀진 촛불이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밝히고 있는 한 우리 영혼의 향로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 향로를 따라 다른 이들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때 밝혀진 촛불은 단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영혼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밝혀진 촛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아니 매 순간 그 촛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삶이 없듯이 우리 영혼에 밝혀진 빛조차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늘 속에 잠 재울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남성철<br>베네딕도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김교복<br>레오   | 송현식<br>바오로  |
| 제2독서자 | 전지요<br>글라라     | 서용숙<br>에스텔  | 김금자<br>데레사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1반 |

### 다음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이호미<br>엘리사벳 | 최진수<br>에우세비오 |
| 제1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권오상<br>바오로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권순길<br>체칠리아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1반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서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신하는 믿음을 독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2011년 1월

주님 세례 축일

오늘(1월9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례주년으로 성탄 시기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 본당 30주년 기념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묵주기도 봉헌표 : 사무실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를 예수성심상(제대앞)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시작

-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1년 동안 전 신자 친구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성서 읽기에 맞추어 알기 쉬운 해설을 주간별로 해드립니다. 나뉘드린 매일성경읽기표에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갑시다. (이주간의 암송 성구 : 주보 5면 참조)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 오후 8시, 강당 (같은 내용을 오전/오후 두번 공부합니다.)
- 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울프레아 기금모금 홈페이지 음식판매

- 일시 : 1월15일 특전미사 후, 16일 주일미사 후
- 메뉴 : 가제미 식혜, 빈대떡, 오징어채무침, 무말랭이, 콩자반, 돼지족발, 호박죽 등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견진성사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월6일(주일) 성인 교우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

십시오.

- 성사일시 : 2011년 2월6일(주일) 낮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LA대교구 San Pedro Region)
- 교육 일정 : 1월28일(금) 오후 8시, 29일(토) 오후 8시, 2월5일(토) 오후 8시 리허설
- 신청마감 : 1월23일(주일)
- 문의 : 종교교육분과장 최재은 베드로 ☎(310)694-4585

◆ 배론 청년회 스키 트립 & 회원 모집

- 스키트립 일시 및 장소 : 1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 빅배어,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회원모집 : 청년이세요?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배론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니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 '백삼위 한인성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 개설

- 우리 본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향후 성당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이 웹사이트에 별도 공지없이 등록됩니다. 인화를 할 수 있는 원본 그대로 게재되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화하거나, 온라인에서 바로 인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flicker.com/photos/103skcc>

◆ '거룩한 집 성당' 깨끗이 사용합시다.

- 새해를 맞아 성당 1,2층 카펫 전체를 물청소 했습니다. 특히 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전기, 에어컨, 히터 사용 후 반드시 끄십시오.
- 화장실 사용후 뒷자리를 꼭 돌아봅시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9일(주일) : 토런스 남2반(소고기 무국 \$3)
- 1월16일(주일) : 울프레아(배추국 \$전신자에 무료제공)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덕희 | 강숙경 | 구자은  | 김선제  | 김 욱   | 김원모 |
|------------------------------------------------|-----|-----|------|------|-------|-----|
|                                                | 김일선 | 김택수 | 남명자  | 노순애  | 민찬기   | 박선희 |
| 성전헌금                                           | 송재훈 | 오일순 | 오태환  | 윤석구  | 이귀분   | 이근모 |
|                                                | 이상석 | 이연행 | 이인석  | 이희영  | 장영우   | 정병훈 |
|                                                | 정상봉 | 조윤영 | 차병용  | 차인수  | 최이원   | 최태훈 |
|                                                | 한혜숙 | 황학수 | 임제임스 | 송마이클 | 영희가보라 |     |
| 합계 : \$5,495                                   |     |     |      |      |       |     |
| 미사헌금 : \$6,251(31~2일) 2차헌금 : \$1,184 구유 : \$66 |     |     |      |      |       |     |
| 성전헌금                                           | 강숙경 | 구자은 | 김선제  | 김 욱  | 김원모   | 김일선 |
|                                                | 김택수 | 남명자 | 민찬기  | 박선희  | 오태환   | 이귀분 |
|                                                | 이근모 | 이상석 | 이인석  | 이희영  | 장영우   | 정상봉 |
|                                                | 차병용 | 차인수 | 최이원  | 최태훈  | 한혜숙   |     |
| 영희가보라                                          |     |     |      |      |       |     |
| 합계 : \$4,165                                   |     |     |      |      |       |     |
| 감사헌금 : 주용범 황인중 이인석 김 욱                         |     |     |      |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교감(Vice Principal)에 이인석 비오 형제 임명
- ◆ 이태석 신부 1주기 추모미사 및 아프리카 후원회 사업보고 다큐멘터리 '올지마 톤즈'의 주인공 故이태석 신부 선종 1주기를 맞아 아프리카 희망후원회 미주지부(회장 김효근 신부)는 추모미사와 사업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 일시: 1월15일(토) 오후 5시

● 장소: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2040 W. Artesia Bl. Torrance, 90504)

\*문의: 한경애 유스티나 총무 ☎(213)880-4663

### ◆ 미서부지역 한인 CLC 신년 특강

● 주제: 성령의 선물, 일곱가지 이야기

● 일시: 1월11일(화) 오후 7시 LA 아그네스 한인성당

● 강사: 이영석 신부

### ◆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1월12일(수)~17일(주일)

● 장소: 오렌지카운티 매리우드 피정의 집

● 주제: '텅빈 충만' (이영석 예수회 신부 지도)

● 신청: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 ◆ 전신자 친구약 통독 주간 암송 성구 ◆

#### ● 1월10일(월) 마태오복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5,3).

#### ● 1월11일(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8,20).

#### ● 1월12일(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11,28).

#### ● 1월13일(목)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13,44).

#### ● 1월14일(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다(18,4).

#### ● 1월15일(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21,22).

#### ● 1월16일(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22,37).

###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김씨니 클라라                 | (310)612-8840                           |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972-9193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변혜경 올리아나<br>920-5153    | 유현자 안나<br>1/7(금) 오후 7시 483-5476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한창주 요아킴<br>1/8(토) 오후 7시 530-7702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54-9407    | 문지숙 엘리사벳<br>1/14(금) 오후 8시 성당 854-9407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713-7783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박동수 베드로<br>1/14(금) 오후 7시 218-7340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윤바오로<br>1/8(토) 오후 6시 316-7819           |
|                                  | 3   | 권영옥 루시아<br>720-2876     | 김미성 에스텔<br>1/10(월) 오전 10시30분 720-2876   |
|                                  | 4   | 이은록 요셉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75     | 이인석 비오<br>1/21(금) 오후 7시30분 433-9075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이경수 헬레나<br>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972-9193 |
|                                  | 3   | 안희경 크리스티나<br>750-4051   | 이재용 안드레아<br>1/8(토) 오후 6시 750-4051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2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김병태 요셉<br>1/14(금) 오후 7시 327-1658        |
|                                  | 3   | 대진희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br>365-9750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김윤진 카타리나<br>1/15(토) 오후 7시 997-5545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이용무 스테파노<br>1/14(금) 오후 7시 377-9989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금영도 베드로<br>1/7(금) 오후 7시 541-4706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한애경 올리아나<br>1/14(금) 오후 7시 541-5370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이영숙 수산나<br>1/11(화) 오전 10시30분 544-5078   |



## 201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 “참된 일치의 시작은 친교와 기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인 매년 1월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21, 19)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갈라진 형제들과의 참된 일치와 친교를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경험은 친교와 기도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참된 일치를 누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 42).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 때로는 교회 안의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불굴의 충실성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폭 넓은 일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친교를 이루고, 성찬례의 거행(빵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약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서로 같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갈라지시기라도 한 것처럼” 분열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참된 일치는 분열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지 않고, 우리 모두의 탓이고, 우리 모두의 행위의 결과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일치의 장애물이 되어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치를 위한 기도가 오히려 일치를 이루는 행동을 대체해버리는 것은 아닌지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모 교회는 분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위하여 친교와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친교를 이룬 것은 우리의 일치 운동이 먼저 교리의 차이점이나 교회 형태의 차이로부터가 아니라, 사도들이 보여준 순교적 삶의 열정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를 함께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그들의 일치의 경험은 서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빵 나눔의 참된 의미, 즉 자신을 바쳐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친교의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참된 일치의 삶을 기도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넘어서기 힘든 교회 안팎의 어려운 현실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 형제들과 일치를 이루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쉬운 여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구조적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편견과 오해를 넘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양과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과 열정의 삶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 일치기도주간에 우리는 갈라진 형제들과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현실의 난국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일치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개신교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십시오.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교를 나누는 우리들 안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세례에 포함된 의미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대인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전에 물로 깨끗이 씻는 정화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직업상 이방인, 여자 혹은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들 즉 의사, 백정, 목동, 창녀, 세리는 늘 부정을 타고 있다고 여겼기에 죄인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든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유대교가 정화예식을 통해 갈라 놓은 차별의 벽을 세례를 통해 허물어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다가간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반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선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19)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